

아프로 패션에 관한 디자인 研究

金 知 恩* · 曹 圭 和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衣類織物學科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A Study Concerning the Designs of the Afro Fashion

Kim, Chi Eun* and Cho, Kyu Hwa

M.A., Dept. of Cl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it's purpose in examining the materialized background, characteristic of African traditional costume and the Afro fashion of the year 1960, and it's influence on the contemporary fashion. Then the findings are applied to suggest a new way of image creation.

1960's was the year in which people tried to free oneself from the ruling culture of the social standards, war,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By such movement, people started to get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and ecology. This then lead to the interest of the rights of the minority. With the youngs as the central figure Afro hair style and dashiki appeared as the street fashion.

The characteristics of African costume applied to Afro fashion in 1990's is as below. First, the North African style, Djellaba, and wrap style in the most common silhouette. Second, heavy materials such as stone, copper, silver, and gold are used. Necklace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it's simple but, modern style, delicate but grand style. Bracelets are however, broad in width and many rings are worn widely. Third, Multi colored stripe and prints inspired by tattoo and deformation using red brown, dark beige, and orange are printed on textiles such as see through. Fourth, image of tattoo and deformation are applied to make-up. Afro hair and corn beads are also African taste. Fifth, African taste in recent fashion showed off the black beauty by appointing black models at the collection.

In analyzing the study done above, characteristic images of African costume, accessories and body painting was applied in presenting 3 creative designs. The first design named "Geometric I", took it's motif from the geometric pattern of the body painting with the afro hair. "Geometric II", the second design, showed it's application of geometric pattern of mutilation and the silhouette of the costume by using the see through. The third design called the "Geometric III" showed that the aesthetic and decorative side of clothing can be satisfied by applying various form and color of accessories as the motif. Afro fashion is chosen as one of the folklore mood and it's beauty is conveyed on till today.

I. 서 론

모드(mode)는 인간사회에 있어서 문화 표현의 기반으로 인간의 전체적인 취미의 세계를 알리는 신호체계이다.¹⁾ 이는 복식이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표현

하는 하나의 도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패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사회와 문화의 이해로 이어진다.

최근 세계적인 패션은 "민속풍(ethnic)", "이국풍(exotic)", "동양풍(oriental)"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의상의 이미지를 통해, 혹은 다양한 에스닉

색상과 패턴, 텍스타일을 통해 등장한 현대적 적용들의 사례들은 작가들마다의 개성을 동반하며 새로운 패션의 흐름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파리에서 개최한 1997/98 F/W 컬렉션의 존 갈리아노는 무지개색 구슬들로 짠 코르셋과 섬세한 디자인의 목걸이, 원주민 팔찌 등과 아프리카의 흙과 땅을 나타내는 갈색, 황갈색 등과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나타내는 강렬한 색채로 아프리카 민속복의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적 취미는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을 중심으로 베이비 붐 세대인 젊은 층에 의해 스트리트 패션에서 나타났다.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 의 1967년 S/S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비즈를 응용한 '아프리카 룩'을 시작으로 1968년에는 '사파리 룩'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아프리카적 취미는 패션의 테마로 그 동안 여러 번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의 인식이 미흡해서 패션업계나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프로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이 민속복에 관한 고찰로 민속복의 기본 형태에 대한 언급에 그치고 있으며 이외에는 아프리카의 미술(예술) 특히 카페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세기 패션에서 이국풍, 민속풍 그리고 이중에서도 아프로 패션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해 볼 때, 20세기 후반의 아프로 패션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아프로 패션의 미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아프리카 민속복과 아프로 패션이 처음으로 등장한 1960년대말 아프로 패션의 특성을 고찰하여 최근 현대 패션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지적하고 아프로 패션을 컨셉으로 한 디자인을 시도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아프로 패션의 배경

1. 미술사적 배경

언제부터 아프리카가 이른바 문명화된 서구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가?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착 민족이 만들어낸 문물에 대한 미적 관심을 말한다. 루소가 그 자신이 속한 사회 체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가 처음 형성된 방법과 그것이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공통의 합의 사항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추측해 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듯이 예술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최초의 예를 찾으려 노력을 하였고 초기적인 예술형태인 즉, 원초적 지점을 상상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 경향은 넓게 말하면 원시주의로의 지향이라 할 수 있다.²⁾

마티스는 모로코로부터, 고갱은 타히티, 폴 클레는 튀니지아로부터 환상적이고 열정적인 색과 질감의 영감을 받았다. 이 시기를 니그로 예술가라 할 수 있는데, 강렬한 색채의 사용은 작가들에 의해 추상회화의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세기 추상회화의 아프리카 등에 대한 이국취미는 복식, 추상회화와 같은 저류에서 표현되었음을 의미한다.³⁾ 고갱은 아주 노골적인 원시주의자로 현실을 떠나 원시인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구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피카소(Pablo Picasso)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1907년 Trocadèro 박물관을 방문한 후 아프리카의 조각과 마스크로부터 영향을 받아 아비뇽의 처녀들을 완성하였다. 눈과 코 등의 디테일 및 기하학적인 윤곽의 디테일이 이베리아(Iberia) 지역의 조각과 콩고(Congo) 마스크의 형태와 비슷 혹은 심하게 평면적으로 왜곡시켜서 표현하였다. 한편, 헨리 무어(Henry Moore)는 회화 분야의 피카소와 더불어 현대 미술의 전개를 주도한 조각의 거인이다. 1960년대 중반의 작품인 「Moon Head」는 마마족(Mama)의 마스크를 추상적인 뿔모양의 머리부분 혹은 거대하고 비대칭적인 손과 흡사한 형태로 변형시켰다.⁴⁾ 이상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아프리카 예술에 대한 그 당시 예술가들의 강렬한 관심과 호기심의 정도를 느낄 수가 있으며 또한 작품들에 많은 영향이 미쳤으나 대부분의 관심은 외형을 더 중시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사회의 지배문화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공간적 세계로의 여행을 통해 비일상적인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기획의 제공은 문화와 사회적인 면에서도 나타난다.

2. 1960년대의 시대적 문화적 특성

60년대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활기찬 60년대(Swi-

nging Sixties)⁵⁾, 혁신적인 60년대 (Revolutionary Sixties)⁶⁾, 떠들석한 (Tumult)⁷⁾한 변화의 시대 등이 있다.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흑인민권운동, 남녀평등운동, 반전운동 등 수 많은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1) 흑인 문화

① 민권운동

풍요와 번영의 시대인 1950년대 이후 제 2차 세계 대전과 미·소 냉전 등을 겪은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1961년 1월 새로 당선된 케네디는 불안에 떠는 미국인들에게 “햇볕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넘겨졌다”라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된다. 희망에 들떠 있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수 백년간 계속되어온 인종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육체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반노예 상태인 흑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흐르는 변화의 물결은 흑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소 넘치는 듯한 자유주의적 분위기는 사회도처의 소수집단들로 하여금 불만을 표출하고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기존체제의 불평등에 항거하는 흑인 폭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제임스 브라운은 아프리카의 흑인과 그들의 문화를 알리는 것과, 불평등 및 인종차별에 대한 민권운동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미국의 흑인형제에게 “Get into it and get involved (관심을 갖고 종사하라)”라고 호소하였다.⁸⁾ 이런 호소는 흑인들의 집단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목사에 의해 이끌어진 비폭력 무저항 운동인 워싱턴 대행진에선 흑백 차별 철폐를 요구하게 된다. 흑인무슬림운동의 지도자 말콤 X는 백인들을 악마로 규정, 아프리카로 귀환, 흑백분리국가 등의 주장을 한다. 한편, 흑인 민족주의 단체의 대변인인 Maulana Ron Karenga는 1968년 형제들에게 세계 혁명을 위한 하나의 전투방법으로 흑인처럼 생각, 행동하고 흑인의 삶을 살며 검은것을 구매하고 선거에선 흑인을 선출하자는 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다.⁹⁾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흑인의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구

호하에서 흑인의 스타일에 변화가 일게 된다. 패션의 변화는 팝스타에게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 백인을 동경하고 그들의 스타일로 몸치장을 하던 것에서 그들의 ‘약속의 땅’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영감과 가르침을 구하게 되고, “afro hair (아프로 헤어)”, “dashiki (다시키)”, 그리고 아프리카 프린트가 전세계적으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아프로 헤어와 아프리카 프린트 등은 히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Y. Connkie는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에서 히피들의 에스닉한 의상은 흑인인권단체와 흑인 가수들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¹⁰⁾

② 흑인음악

흑인들에게 있어서 음악은 수백 년간 종교와 함께 고통을 달래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미국 흑인 음악의 가사를 살펴보면 노예시절, 노예해방, 인종차별의 사회, 삶, 영혼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슬픈 삶을 노래한 것이 곧 리듬 앤 블루스 (rythem and blues) 와 소울 (soul) 이다.¹¹⁾ 1960년대 중반에 흑인음악의 대부 베리고디 주니어가 모타운이란 레코드 회사를 설립하여 다이아나 로스, 스모키 로빈슨, 마이클 잭슨 등을 발굴한다. 백인들이 좋아할 만한 흑인음악을 만드는데 노력하여, 흑인도 백인용 음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장하는 흑인운동으로 음악도 보다 흑인답게 변하게 되는데 이 변화의 열매가 곧 소울이다.¹²⁾ 소울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흑인의 영혼을 담으려는 음악으로 대표적인 가수는 제임스 브라운 (James Brown) 과 아레사 프랭크린 (Aretha Franklin) 을 들 수 있다. 제임스 브라운은 흑인 자본이 자리 잡는데 노력하였고 아프리카 투어를 하여 흑인의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노래로는 「Papa's got a brand new bag」이 있다. 이 곡에서 그는 흑인들 내부에 들어 있는 사회에 대한 복수심에 대해 노래하여 흑인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흑인들의 현실에서 느끼는 내면적인 슬픔과 감정을 탁월하게 노래한 아레사 프랭크린의 목소리는 백인들마저도 매료시켜서 흑인음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변화에 발맞추어 슬라이 앤더 패밀리 스톤 등과 같은 흑인 팝 스타들은 조심스럽고 깔끔한 백인의 모습에서 검은 이미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몸치장 방법으로 스타일을 바꾸게 된다. 또한, 곱슬머리를 펴기 위해 사용하던 화학 물질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들의 자연스런 곱슬머리를 길러서 '아프로 헤어스타일'이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아프로 헤어스타일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는 백인과 일본인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액세서리인 다양한 색상의 '아프로' 가발이 등장하게 된다.¹³⁾

Ⅲ. 아프리카 민속복과 아프로 패션

1. 아프리카 민속복의 특성

아프리카에는 석기 시대의 조건하의 자연민족을 비롯하여 완전히 서구화된 부족 등의 공존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및 부족들 간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민속복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생활을 찾아 다니는 습성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치적 경계선의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에 대하여 연구를 할 경우에 특정 나라로 구분하기보다는 문화적,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러 국가 및 부족들은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한 복식을 이룬다. 그 특징을 형태, 액세서리, 패턴과 색채로 정리하였다.

1) 형태(form)

복식의 형태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형태와 가장 원시적이면서 단순한 의복 형태인 랩(wrap)으로 크게 구분 가능하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복식으로는 젤라바(djellaba), 이자르(izar), 카프탄(caftan) 등을 들 수 있다. 젤라바(djellaba)는 북아프리카에서 착용되어지는 복식으로 종아리 길이의 원피스이다. 몸판에는 여유분이 많이 들어가고 A라인 실루엣으로 밑이 넓어지며 양 옆선에는 슬릿이 들어가 활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 이자르(izar)는 그리스의 키톤(chiton)과 비슷한 형태로 엮은 여미고 뒷부분은 어깨 너머로 끌어 당겨서 2개의 피블라(fibula)로 앞에서 고정시킨다. 머리부터 둘러쓰기 때문에 자연스런 주름이 생기기도 하며, 허리에 벨트나 새시(sash)를 맴으로써 상체 부분에 블라우스 효과를 주기도 한다. 카프탄(caftan)은 매우 대중적인 실내복으로 외출 시에는 줄무늬

의 젤라바나 머리부터 둘러써서 몸전체를 가리는 천인 흰색의 하이크(haik)를 덧 입는다. 화려하게 정성 들여서 수놓은 카프탄은 현재 신부만이 착용한다.¹⁴⁾ 판초(poncho)는 원래 두마리의 염소가죽을 하나는 착용자의 앞쪽에 다른 하나는 뒤쪽에 놓고 앞뒤에 놓인 가죽의 다리 부분을 착용자의 어깨 위로 모아 올려서 묶어 주었으나 현재는 직물을 사용하고 있다.¹⁵⁾

랩(wrap) 형태의 스커트는 지역에 따라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크기를 달리한 직사각형의 천을 허리 혹은 윗 가슴선에서부터 몸을 느슨하게 감싼 후 왼쪽 옆에서 양끝자락을 모아 묶거나 비틀어서 그 매듭을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밖에 두기도 한다¹⁶⁾.

2) 액세서리

아프리카 대륙은 여러 개의 특징적인 기후의 본고장으로 액세서리의 재료가 이들 지역안에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해안지대의 사람들은 그런대로 옷을 입고 살지만 기후가 더운 내륙지방의 사람은 알몸에 가깝다. 그러나 내륙지방의 액세서리가 해안지방에 비해 훨씬 화려하고 다양하다. 그것은 맨몸에 옷을 대신하여 액세서리로 장식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비즈(Beads)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신방법중 하나로 계급, 종교, 정치, 예술적 태도를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이며 문화적 가치를 전달한다.¹⁷⁾ 비즈의 재료로 씨앗, 조개껍질, 뼈, 상아, 이빨, 밀짚과 금, 은, 동 등이 사용된다. 은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들에게서 애용되는 것으로 순수함과 행운을 상징한다.¹⁸⁾ 비즈의 무늬는 4각, 다이아몬드, 직선, 지그재그, 마름모로 대칭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다양한 무늬를 보여준다.¹⁹⁾ 비즈의 색채에는 의미가 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1가지 색으로 만든 비즈 목걸이를 상대편에게 전달하고 자신은 그것과 똑같은 발찌, 팔찌, 그리고 허리 벨트를 착용하여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밝히는 관습이 있다.²⁰⁾

목걸이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상의의 칼라나 러프처럼 장식되어지는 액세서리이다. 동아프리카의 삼부라(Samburu)에서는 목걸이를 턱 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미인의 조건이다.²¹⁾ 팔찌와 발찌는 그 형태

나 디자인이 다양하다. 소재로는 상아,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 구리 등이 애용된다.

허리 장식은 형태와 색채가 다양하며, 지역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다. 동아프리카의 딩카(Dinka)족의 남성은 비드로된 허리 콜셋을 착용하는데 연령에 따라 착용한 콜셋의 색채가 다르다. 15세에서 25세까지는 흰색과 빨강, 25세에서 30세까지는 핑크와 퍼플, 그리고 30세 이후는 노란색을 사용한다. 서아프리카의 요루바(Yoruba)에서 허리 밴드는 중요한 의미를 상징한다. 신부는 처녀임을 상징하는 수많은 줄의 비즈를 허리에 두르고 결혼노래, 'Ekun Iyawa',와 함께 신랑의 가족에게 가는 전통이 있다.²²⁾

머리장식은 각 지역마다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남아프리카의 힘바(Himba)족은 혼전에 비드로 된 머리장식을 하며 결혼 후에는 브라운색 면 소재로 머리를 감싼다. 그리고, 줄루(Zulu)의 기혼여성은 남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심플한 머리 밴드에서 실물 크기의 왕관까지 무엇이든 머리에 쓴다. 한편, 보란(Boran)족은 임신 중에 머리를 땀으며 평상시에는 대머리와 흡사하게 머리를 깎는다. 터번(Turban)은 주로 천을 머리에 둘러 감는 형태로 원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가 사용한 머리장식이다. 한편, 대부분의 아프리카인은 맨발로 생활을 하나 북아프리카에서는 빨강 신발, 바부슈(babouche) 그리고 초라빌(chrabill)을 신기도 한다.

3) 패턴과 색채 (pattern & color)

패턴은 면, 모, 가죽 등의 소재에 스트라이프와 체크 무늬가 가장 많이 쓰이며 의복 제작시에 어떻게 배치하는냐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생긴다. 그 외에는 추상적인 무늬와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다. 기하학적 방법은 보통 사각, 다이아몬드, 마름모, 직선, 지그재그 등의 기본 모티프를 만들어 미리 무늬를 넣으면서 짠다.²³⁾ 또한, 아프리카의 다양하고도 독특한 패턴은 신체 장식에서도 보여진다. 신체 장식의 방법으로는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과 신체의 일부에 상처를 내거나 파손시켜 형태를 바꾸는 방법(deformation, mutilation) 등을 들 수 있다.

색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²⁴⁾ 금색은 따뜻함과

성공, 은색, 흰색 그리고 푸른색은 순결함과 즐거움 그리고 빨강색은 죽음과 슬픔을 뜻한다. 흰색은 신 그리고 조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노랑, 빨강, 검정 등의 색이 많이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디고 블루(indigo blue)가 가장 선호되는 색채이다.

2. 1960년대 아프로 패션

1) 아프로 패션의 개념

전 인종의 평등과 존중은 흑인 민권운동의 가르침의 결과로 패션에서는 아프로 룩, 즉, 아프리카 민속복의 적용 및 착용이란 현상을 유래하였다.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에 의하면 “아프로 스타일 (afro style)”이란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아 1960년대말에 등장한 헤어스타일, 복식 그리고 액세서리”²⁵⁾라고 하고 있다. 「The Encyclopedia of Fashion」에서 “아프로 (afro)”는 “자연스럽게 자라는 덩수룩한 헤어스타일로 60년대부터 미국 흑인들 사이에 유행하였으며, 백인에게도 인기였다.”²⁶⁾라고 하고 있다. 한편, 조규화의 「복식사전」에서 아프로 패션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착용하는 옷을 모티프로 한 민속복적인 복식”²⁷⁾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프로 패션이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서 그 모티프를 얻어 디자인된 복식 및 액세서리로 60년대에 등장하여 널리 보급된 스타일을 말한다.

2) 아프로 패션의 특징

1960년대말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항한 민권운동과 히피의 출현 등으로 흑인들의 뿌리인 아프리카로의 관심 및 지향 운동이 일게 되면서 백인의 외모와 복식을 표본으로 받아들이던 흑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더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 특유의 민속복을 현대 패션에 도입, 표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결국 초원과 삼림의 근원지인 아프리카 대륙으로 관심을 이동시키게 되었다. 덩수룩하고 자연스런 곱슬머리를 시작으로 몸에 자유롭게 드레이프시키는 헐렁한 실루엣의 다시키, 카프탄, 젤라바 등의 민속복을 그대로 도입, 변형하여 젊은 세대의 패션으로 나타났다. 시사잡지에서는 케냐, 모로코 등의 여행에 관

한 기사들을 자주 다루었고 직접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세계 각국의 골동품과 장식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 패션의 등장은 흑인 모델의 기용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7년 N. Y. Times지의 패션 부록에 흑인 모델로는 처음으로 Naomi Sims가 등장하고 그후, Ladies Home Journal의 표지를 장식했다.²⁸⁾ 그리고, 1968년 4월의 킹 목사 암살을 계기로 논설란과 광고에 흑인 모델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1968년 W. W. D.는 "T.V.에서 웬만큼 검지 않고서는 흑인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라고 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될 정도로 흑인 모델이 많이 등장했다.²⁹⁾ 이러한 특성은 컬렉션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첫째, 형태는 켈라바, 다시키, 자보, 부바, 카프탄 등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디자이너가 새롭게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Knoberry 등의 외국 풍물을 취급하는 상점에서 구입하거나 실제로 아프리카 여행에서 구입한 아프리카 민속복을 그대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액세서리는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소재를 이용한 토속적인 목걸이가 유행하였다. 셋째, 패턴의 유형은 단순한 스트라이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기본 모티프인 사각, 마름모, 다이아몬드, 직선, 지그재그 등을 그룹시켜서 무늬를 짜 넣는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동물, 식물, 조류, 사람을 모티프화하여 지오메트릭하게 표현한 무늬 등 매우 다양했다(그림 1). 넷째, 흑인 머리카락의 자연스런 컬(curl)을 똑바른 머리로 펴는데 사용하던 화학약품을 대부분의 흑인들이 중단함으로써 아프로 헤어스타일(그림 2)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와 흑인 문화를 상징하는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당시의 반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되어 곧 백인들에게 유행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젊은세대에도 영향을 주었다.

IV. 1990년대에 나타난 아프로 패션의 양상과 그 표현

1980년대 중반부터 동구권의 개방화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민속풍, 이국풍 혹은 에스닉풍 중에

서도 아프리카풍은 1980년대 말 영화 "Out of Africa"를 기점으로 하여 아프로 패션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아프리카 민속복에서 모티프를 얻은 아프로 패션은 복식 형태의 그대로의 재현보다는 그 특색의 일부를 살려서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아이템을 도입, 응용하여 일상복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프리카적 디자인의 모티프는 복식의 형태, 액세서리의 장식적인 디테일, 무늬 그리고 색채 등으로 광범위하게 보여지고 있다.

첫째, 북아프리카의 켈라바와 서아프리카의 랩 형태(그림 3)의 이미지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나 1960년대말에 많았던 민속복 형태 그대로의 도입과는 달리 모던한 기성복 형태로 변형하여 표현되었다. 둘째, 액세서리는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등과 같은 보석 대신 다소 무거워 보이는 원석과 금, 은, 동, 등 민속복에서 보여진 소재가 애용되었다. 목걸이는 아프리카의 반투(bantu)나 초우커(choker)와 같은 목걸이(그림 4)의 이미지를 심플하고 모던한 기성복이나 이브닝 드레스에 도입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한 한편, 토속적 형태의 목걸이를 그대로 모티프화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팔찌는 목걸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대체적인 경향은 여러 개의 링을 동시에 끼우는 형태였으며 암렛(armlet)도 보여졌다. 모자는 북아프리카의 터번과 캡(cap)의 형태가 현대적으로 표현되어 많이 등장하였고 무늬는 아프리카의 기본 모티프인 다이아몬드를 계속 반복하여 전통적인 기하학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한편, 신발은 북아프리카 샌들의 이미지를 도입한 다양한 디자인 형태가 등장하였다. 셋째, 색채는 아프리카 민속복의 전통적인 원색, 타오르는 석양의 빛, 붉은 브라운, 짙은 베이지, 오렌지와 같은 아프리카 대지의 컬러 등에서 이미지를 도입한 색채가 많았다. 한편, 패턴은 줄무늬, 체크무늬, 아프리카 동물과 식물을 이미지로 하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 그리고, 신체장식과 벽화를 응용한 모티프의 패턴(그림 5) 등으로 최신 개발 소재에 표현되었다. 다섯째, 메이크업 및 헤어는 신체장식, 가면 등의 이미지(그림 6)를 도입하여 새로운 화장술과 다양한 헤어스타일의 형태로 표현되어졌다. 여섯째, 흑인 모델의 특징은 백인의 외모를 갖춘 흑인 모델을 사

용했던 1960년대말과는 달리 외모까지도 완전히 아프리카 원주민과 흡사한 모델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V. 아프로 패션의 디자인 연구

1. 제작의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동구권의 개방화, 환경문제의 확산으로 에콜로지, 이국풍, 민속풍의 유행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지향은 영화 "Out of Africa"를 기점으로 하여 활발해졌다. 이것은 현대 문명의 인위적이며 기계적인 틀에서 벗어나 자연과 근원으로 돌아가고픈 현대인들의 갈망이 복식에 표현된 예이다. 이러한 유형은 1960년대말 사회 규범, 베트남 전쟁, 과학의 발달로 인한 지배문화에서 벗어나 환경, 에콜로지 그리고 흑인의 민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미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상과 같이 아프리카의 민속복과 아프로 패션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민속복을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 수단으로 인식하고 전통 복식을 복식 디자인에 적용시킴으로써 현대 정서와 감각에 어울리는 아프로 패션을 창작 디자인으로 제안해 보았다. 창작 디자인은 총 3점으로 민속복의 기본 형태인 랩 실루엣, 원주민의 독특한 액세서리, 원초적인 의복 형태로 정의 가능한 바디 페인팅과 문신의 기하학적 패턴, 아프로 패션의 특징인 아프로 헤어스타일 등 앞의 연구에서 연구한 결과를 이미지로 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색채는 아프리카 대지의 색인 베이지와 브라운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서 애용되어지는 푸른색과 원색을 선택하였으며 아이템은 코트와 바디 슈트, 점프슈트, 그리고 투피스로 구성하였다.

2. 디자인 및 해설

1) 아프로 패션 디자인 I : "Geometric I"

〈그림 7〉

아이템 : body suit와 coat

소재 : 면+poly urethane, chiffon

색채 : bodysuit : beige, coat : darkbrown, white, black의 프린트

컨셉 : 복식 형태의 하나로 생각되어지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바디 페인팅에서 보여지는 반복적인 기하학적 모티프로 단순한 실루엣의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부드러운 소재인 시폰에 프린트를 함으로써 원주민들이 움직일 때마다 율동적으로 보이는 바디 페인팅의 패턴을 표현하였으며 바디슈트(body suit)의 가슴부분에도 프린트를 넣어 줌으로써 코트와 바디슈트의 연결감을 주었다. 색채는 아프리카 대지의 색인 베이지와 브라운톤, 블랙과 화이트로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바디슈트는 가슴선 아래로 프린세스 라인 커팅을 한 후 핀턱(pintuck)을 하여 신체의 곡선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2) 아프로 패션 디자인 II : "Geometric II"

〈그림 8〉

아이템 : 점프 슈트, 랩 스커트, 터번

소재 : velour flocking, silk satin

색채 : jumpsuit : brown, 랩 스커트 : blue

컨셉 : 아프리카 원주민의 상흔과 북아프리카의 복식 스타일인 터번(turban)과 이자르(izar)의 주름과 실루엣을 응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원주민의 상흔은 flocking처리된 velour를 이용하여 무늬 사이사이로 피부가 비치게 하여 실제로 피부에 상흔을 한 느낌을 표현하려 하였다. 무늬는 심플하게 도안을 하여 규칙적으로 모던하고 언밸런스 하게 디자인한 점프슈트(jumpsuit)에 도입하였다. 한편, 원주민이 애용하는 색채인 푸른색을 사용한 스커트와 모자는 아프리카 전통 복식인 이자르와 터번의 실루엣과 주름에서 영감을 얻어 심플한 기하학적 프린트의 점프슈트와 코디함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표현하려 하였다.

3) 아프로 패션 디자인 III : "Geometric III"

〈그림 9〉

아이템 : sleeveless top, 랩 스커트, 액세서리

소재 : sleeveless top : 망사, 스커트 : ikat

색채 : sleeveless top : black, 랩 스커트 : red, yellow, blue, brown, orange

컨셉 : 화려하면서도 섬세하고 웅장한 아프리카의 은과 비즈 액세서리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스커트는 아프리카의 가장 보편적인 패턴인 줄무늬를 도입하여 강렬하고 화려한 원색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석양빛처럼 강렬한 컬러와 먼 지평선의 푸른빛 등 아프리카의 풍광을 바라보는 듯한 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sleeveless top은 검은색 망사로 몸에 꼭 맞게 처리하여 맨몸에 랩 스커트와 액세서리만을 한 듯한 원주민의 복식을 표현하려 하였다.

VI. 결 론

이상에서 1960년대말 미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그 가운데 출현했던 아프로 패션의 특성과 그것이 그 이후 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프로 패션을 도입한 창작 디자인을 3점 제시하였다. 아프로 패션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서 영감을 받아 1960년대말에 등장한 복식, 액세서리,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다. 이러한 아프로 패션은 1960년대말 미국에서 사회규범, 베트남 전쟁, 과학의 발달 등의 지배문화에서 벗어나 환경, 에콜로지, 흑인민권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아국풍 중에서도 흑인의 근원인 아프리카 민속풍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팝스타를 필두로 시작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트리트 패션에서 '아프로 헤어'와 '다시키' 등이 등장했다. 1967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아프리카 룩'을 기점으로 시작된 아프로 패션은 첫째, 민속복 형태의 도입, 둘째, 원시적 재료를 이용한 액세서리의 표현, 셋째, 전통 패턴인 줄무늬, 체크무늬, 아프리카의 자연을 모티프로 추상화한 혹은 전통 모티프인 사각, 마름모 등의 기하학적 무늬의 사용 등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민속복의 특성을 그대로 디자인에 도입하거나 실제 민속복의 구입을 통해 아프로 패션을 표현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아프로 패션은 1990년이후 현대 패션에서는 위의 미적 특성에 과학적, 기술적으로

재조명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현대화된 감각으로 표현되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프로 패션은 간결해지고 정리된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see through 소재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로써 1960년대의 아프로 패션에 좀 더 발전되고 현대화된 민속성을 연출하였다.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현대화된 민속성의 표현은 여러 디자이너에 의해 다양한 양식으로 전개되어 일반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경향으로 아프로 패션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고조되었고 아프리카는 하이패션과 스트리트에서 모두 중요한 하나의 패션 테마로 자리잡게 되었다.

발전되고 현대화된 아프로 패션의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는 북아프리카의 젤라바와 서아프리카의 랩스타일로 다양한 주름의 변화를 이용하여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스커트와 드레스, 심플하고 모던한 슈트, 그리고 편안한 리조트 웨어(resort wear) 등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둘째, 액세서리의 소재로 보석보다는 다소 무거워 보이는 원석, 금, 은, 동 등이 이용되었다. 액세서리의 디자인은 아프리카의 반투, 초우커, 팔찌 등의 이미지를 심플하고 모던하게 표현하는 한편, 비즈 목걸이, 허리 콜셋 등 토속적 형태를 그대로 모티프화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셋째, 패턴과 색채는 강렬한 원색의 멀티 칼라 스트라이프와 아프리카의 토속적 색채인 레드 브라운, 짙은 베이지, 오렌지 등의 애니멀 패턴, 기하학적인 패턴 등을 see through 소재 등의 최신 개발 소재에 표현하였다. 넷째, 신체장식, 가면 등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새로운 화장술을 선보였으며, 1960년대 등장한 아프로 헤어, 세가닥으로 뿜는 머리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인의 외모를 갖춘 과거의 흑인 모델과는 달리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과 유사한 모델의 기용으로 아프리카적 취미가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프리카 민속복을 주제로 하여 형태, 소재, 패턴, 색채, 헤어스타일 등에 아프리카적 표현 요소를 도입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대중의 감성에 맞게 아프로 패션의 미적 특성을 갖춘 창작 디자인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 원주민이 움직일 때마다 울동적으로 보



<그림 1> Y.S.L.의 아프리카 드레스 「Yves Saint Laurent」, 1967



<그림 2> 아프로 헤어스타일 「Fashion : The Mirror of History」



<그림 3> Romeo Gigli의 랩 스커트의 변형 「Collez-ioni」, 1995. S/S



<그림 4> Choker 목걸이의 이미지 Christian Dior, 「Vogue」, 1997.3



<그림 5> Ozbek의 기하학적 프린트 「Fashions of the Decade 1990」



<그림 6> Paco Rabane의 아프로 헤어스타일, 밀짚과 가면 이미지의 드레스 「Mode et Mode」, 1994.4



<그림 7> 아프로 패션 디자인 I : "Geometric I"



<그림 8> 아프로 패션 디자인 II : "Geometric II"



<그림 9> 아프로 패션 디자인 III : "Geometric III"

이는 바디 페인팅의 패턴을 반복적인 기하학적 모티프로 응용하여 부드러운 시폰 코트에 도입함으로써 그 미적 가치를 현대로 유도하였고 이러한 장식적 모티프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복식인 이자르와 터번의 드레이퍼리를 원주민의 상흔 이미지를 심플하게 도안하여 도입한 점프슈트(jumpsuit)와 혼합하여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표현함으로써 무한한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아프리카의 액세서리의 장식형태와 색채를 현대 복식에 부분적으로 도입할 때 이국적 정서를 갖는 독특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국취미중에서도 아프로 패션에 대하여서만 다루었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여러 민속복 및 예술은 과거의 유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디자인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다각적인 이미지의 재창조 작업을 통해 충분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2. p.25.
2. Lynton, Norton, *The Story of Modern Art*, 윤난지 역., 도서출판 예경, 1993.
3.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92. p.281.
4. 콤스탕스 데 카르, 「현대미술을 변혁시킨 니그로 예술」, 계간미술 13호 중앙일보사, 1991. p.174.
5. Hillier, Bevis, *The Style of the Century*, N. Y., E. P. Dutton, Inc., 1988. p.8.
6. Howell, Georgina, In *Vogue 75 Years of the Style*, Lond., Conde Nast Books, 1991. p.156.
7. Life, Dec. 26, 1969, p.8
8. Ash J., Wilson, E., *Chic Thrills, Rebel Without Cause*, Lo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89.
9. Ash, Juliet, Elizabeth Wilson, *Chic Trills, Rebel Without Cause*, 1992. p. 89.
10. Connikie, Y.,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n.p.] Facts on File. 1990. p. 23.
11. Brake, Mike, *Comparitive Youth Cul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p.124
12. 김지영, 「이상의 시대 반항의 음악」, 문예마당, 1995 p.146.
13. Feldman, Elane, *Fashions of a Decade*, Lond, B. T. Batsford Ltd., 1992. p.23.
14. Kennett, Frances, *World Dress*, Lond, Mitchell Beazley, 1994. p.79.
15. Aradeon, B. Susan, *West African Textiles and Dress*, N. Y., Museum of African Art, 1975. p.25.
16. 황춘섭, "서아프리카 전통 문화 고찰 I", 「복식학회지」, 제18호, 1992. p.106.
17. Dubin, Lois Scherr, *The History of Beads*, N. Y., Harry N. Abrams Inc. Pub., 1984. p.122.
18. Mack, John, *Ethnic Jewelry, Italy*, Harry N. Abrams, 1988. p.40.
19. Kennett, Frances, *World Dress*, Lond, Mitchell Beazley 1994. p.40.
20. Ibid, p.39.
21. Mark, John, 1988. p.11.
22. Dubin, Lois Scherr, 1984. p.141.
23. Fiske, Yohe Pickering *From the Far West, Carpets and Textiles of Morococ*, Washington D. C., The Textile Museum, 1980. p.53.
24. Kennett, Frances, 1994. p.89.
25. Clasibetta, Mankey Charlette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 Y., Fairchild Pub., 1988. p.3.
26. Donovan, Carrie, *The Encyclopedia of Fashion*, N. Y., Harry N. Abrams, Inc. Pub, 1986. p.16.
27. 조규화, 1995. p.352.
28. Lobenthal, Joel, *Radical Rags*, N. Y., Abbeville Press, Inc., p.234.
29. Ibid, 1990. p.186.